

Evolution 3.0 : 약동하는 생명충동(엘랑비탈 elan Vital)

“지난 10년간 CK는 생존의 문제와 성장의 고통을 극복한 훌륭한 경험체계(Duration)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직관’이 강력한 미래의 생명력을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견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있음에 두말할 이유가 없다. 오늘의 현대과학은 인류의 진화를 근거로 확보된 과학적 증거와 체계이론 속에서 불과 100여 년 만에 급속하게 발전되어왔다. 생물학과 물리학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와 생명 존재의 본질을 환원 분석하고자 하는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Bergson)은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유심론자로서, 인간의 성장이 기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진화의 두 가지 필요 조건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개체 스스로 자신을 이전과 차별화 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내면의 강한 생명충동(elan Vital)이며,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본성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진화를 ‘창조적 진화(Creative Evolution)’라고 칭했다. 특이할 점은 ‘내면의 강한 생명충동(엘랑비탈)’이 변화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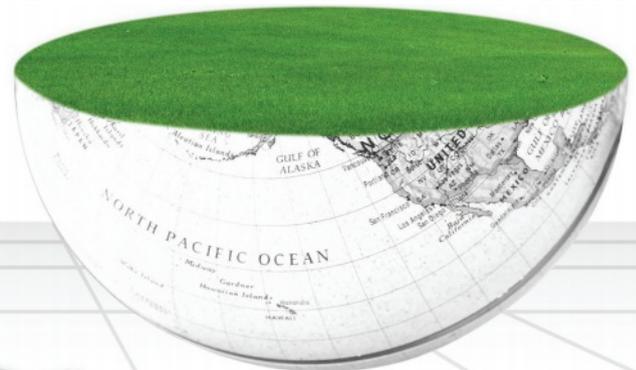
진화가 적응과 생존의 단순한 귀결(Natural Selection)이 아닌, 방향성을 가진 강한 생명충동의 발현이라는 점은 혁신적인 발상이다. 일정기간의 경험체계(Duration)를 통해서 개체에 녹아진 ‘직관’이 이러한 생명력의 본질이며, 과학적 인식체계로는 이를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주 구슬 하나하나가 물리적 법칙에 근거한 진화의 결과라면, ‘축적된 직관’ 속에 녹아있는 생명력은 ‘구슬을 꿰는 실’과 같은 것이다.

지난 10년간 CK는 생존의 문제와 성장의 고통을 극복한 훌륭한 경험체계(Duration)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직관’이 강력한 미래의 생명력을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우리 스스로를 과거와 분리하고 차별화 시켜내야 하며 변화를 창조 해내는 것이다.

2011년은 글로벌 서비스 원년을 표방한다. Location, Service, Qu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거의 맞는 말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틀린 이야기다. 불가능에 도전할 때만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_ The Spirit of Singularity Univ.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



James Roh